

# 질병대응센터 제주 설치 가능성 커지나

### 일본, 공항만 소재·검역소 배치지 우선 검토 요청 제주 설치 요건 모두 갖춰... 행안부 측 “검토 중”

정부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지역으로 향만과 공항이 있고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가 배치돼 있는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물론 섬이라는 환경·지리적 특성에 따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배치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제주 지역에 들어설 센터는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설립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배치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한 기준에 맞춰 설계 중”이라며 “외부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조사하는 검역소가 기존에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을 나눠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저희에게 요구했고,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 설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향만·검역소가 있고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 질병대응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일본에서 요청한 바도 있고, 저희도 검토 중”이라며 “다

만 지역에 따라 조직의 규모가 달라지고, 명칭도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가능하는 것은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립검역소는 현재 제주를 비롯해 부산, 군산, 인천, 목포, 여수, 마산, 김해, 통영, 울산, 포항, 동해,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가 총 6개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검토 기준대로라면 제주도는 공·항만·검역소가 모두 들어서 있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자체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치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소속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이 논의됐으며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지원 기

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공포되고 다음달 12일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는 정부에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해외유입 감염병에 취약하고, 매년 1500만 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지, 다수의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치료를 위한 이송 및 의료인력 수급 한계 등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주권 질병대응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부미한기자 bu8385@ihalla.com



서귀포감귤박물관에 심어져 있는 126년생 최고령 하갈나무.

사진=서귀포시 제공

## 최고령 하갈나무 향토유산 된다

### 126년생 부목·100년생 자목 제주도 유산 공고·등록 예정

감귤박물관에 식재돼 있는 ‘신호동 하갈나무’ 2그루가 제주자치도 향토유산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귀포시는 감귤박물관에 식재돼 있는 126년생 최고령 하갈나무 부목과 100년생으로 추정되는 하갈나무 자목 등 2그루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 공고·등록을 앞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하갈나무는 지난 2017년 서귀포시 신호동에 거주하는 고(故) 김성보 서귀읍의회 의장의 가족들이 감귤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기증인 김부찬씨 가족의 증조부인 김병

호 선생이 1894년 당시 김홍집 총리 대신에게 선물받은 하갈나무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증된 하갈나무는 당시 파종·발아한 126년 수령의 하갈나무와 부목의 씨앗을 재파종해 자란 100여년 수령의 자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유산은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 가운데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제주의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정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하갈의 사적 연원을 살펴보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신호동 하갈나무를 잘 보존, 제주하갈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감귤박물관의 랜드마크로 육성시켜 제주를 대표하는 역사·경관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영희기자

## “넓은 해녀탈의장이 바뀌었어요”

### 태홍1리어촌계 탈의장 친환경 단장에 쉽터도

넓고 오래된 해녀탈의장이 해안 관광시설로 탈바꿈했다.

서귀포시는 최근 태홍1리어촌계 해녀탈의장을 주변 해안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해녀탈의장으로 단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태홍1리어촌계 해녀탈의장은 해안도로 경계에 인접해 있으나 탈의장 콘크리트 외벽과 대형 철제 유류탱크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미관을 해

칠 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도 낡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적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탈의장 외벽을 자연친화적인 목재로 단장하는 한편 일부 공간을 쉽터로 조성, 해안을 찾는 도민·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했다. 또 낡은 유류탱크를 없애는 대신 보일러실 안에 새로이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동시에 옥실 내부도 새롭게 단장했다.

해안에 시설된 대부분 해녀탈의장은 제주 해녀들의 삶의 자취가 담긴 어업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일부는 건물 외관이 낡고 오래돼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귀포시는 현재 동일리어촌계 해

녀탈의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며, 향후 1곳을 추가로 선정해 정비할 계획이다. 현영희기자

## 혈세 먹는 ‘평택항제주물류센터’ 팔릴까

### 도, 건물 매각 절차 본격화 어제 전국 경쟁 입찰 공고

장기간 개점휴업상태로 ‘혈세 낭비, 애물단지’ 지적을 받아왔던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건물의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 센터 건물 매각을 위한 전국 일반경쟁 입찰공고를 10일부터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입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8월 24일 오전 10시 개찰된다.

예정가격은 17억4749만2150원(감정평가 수수료 포함)으로, 온비드 시스템에서 일괄 개찰 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인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 입찰금액 입찰자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절차는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3월 열린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진행됐다.

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제주농수축산물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도권 거점 물류센터 용도로 48억3000만원(국비보조 50%)을 투입해 건립됐지만 수년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제주-평택항로를 오가던 카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위탁업체가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개점휴업상태를 이어왔다.

도는 지난해 운영사업자 선정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부지사용 임차료 유지비용 부담에 따른 도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센터 매각을 선택했다.

물류센터는 평택항 포승물류단지 내 1만1171.76㎡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건물 3104.90㎡)로 건립됐다. 냉동실과 냉장실, 사무실, 상온 집하장 등이 갖춰져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부지 사용 임차료 유지비용 약 3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회기·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안돼”

### 도의회 혁신 2호 기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혁신 1호(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발표에 이어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 기준을 강화한 자체 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외부강의 기준 강화는 그동안 회기 및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로 의정지원 활동이 약화되고, 피감기관(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외부강의 참여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도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강,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갈, 팔삭, 세미늘, 금굴,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문,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병자묘	1년생

## 한림종묘

010-3690-2453

## 감귤 신품종 분양

###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

##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